

이병철 회장 탄생 100주년 심포지엄

김현진 기자 bor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0.02.10 21:56

"호암 경영 특징은 무한변신·스피드"

국내·외 학자 대거 참석 "유교에 선진경영 접목 독창적 모델 만들었다"

"호암 이병철은 한국의 신(新)유교주의와 일본식 경영시스템, 독일식 생산방식, 그리고 미국의 관리방식을 종합, 독창적 경영 모델을 창조했다."

프랑스 소르본대의 도미닉 바흐조 교수와 이 대학 극동연구센터의 랑리 박 바흐조 연구원은 **삼성그룹** 창업한 고(故) 이병철 회장의 경영방식을 이렇게 평가했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삼성경제연구소** 주최로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린 '이병철 탄생 100주년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온 국내외 학자들은 여러 관점에서 이병철 회장의 경영 철학과 경영 방식을 분석했다.



▲ 10일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에서 열린 '이병철 탄생 100주년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경영 철학과 경영 성과에 대한 발표자의 강의를 듣고 있다./이진한 기자 m agnum91@chosun.com

◆'이병철식 경영', 독창적인 시스템에 스피드를 결합

이날 심포지엄에서 연세대 경영학과 장진호 교수는 '시스템 경영'의 틀을 짠 이 회장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 회장은 국내 최초로 공개경쟁채용제와 비서실, 사업부제를 도입했다"며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라는 경영이념을 제도의 틀에 담아 거대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독특한 경영체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이병철 회장은 '무한 변신'을 거듭하는 리더였다"고 강조했다. 경제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직시하고 그 속에서 영속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혁신과 창조에 앞장서는 것이 기업인의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인 '호암자전(湖巖自傳)'을 정리하는 등 생전 이 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최우석 전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은 '호암의 추억'이란 특강에서 이 회장의 '무한변신'에 관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이 회장은 항상 '사람은 기운을 늘 바꿔줘야 뒤처지지 않는다'며 겨울엔 한옥, 여름엔 양옥에서 살며 늘 환경을 바꿀 정도로 변화에 민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영학과 송재용 교수는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을 녹인 '이병철식 경영'을 분석했다. 송 교수는 "삼성은 반도체사업의 '성공 DNA'를 기반으로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일본식 경영방식에 미국식 경영 방식을 접목했다"며 "대규모이면서도 스피디(speedy)하고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을 고루 갖춘 기업으로 재탄생했다"고 말했다.

◆외부의 '눈'으로 본 한국 기업 문화

일본, 미국의 학자들은 이병철 회장을 통해 '한국식 기업 경영'의 특성을 분석했다. **일본 게이오(慶應)대학의 야나기마치 이사오(柳町功) 교수**는 이병철식 경영과 일본 미쓰비시 창업자인 아와사키 야타로식 경영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암의 인재경영은 창업기부터 우수한 인재의 스카우트와 육성에 관심을 가졌던 미쓰비시 창업자 아와사키 야타로와 유사하다"며 "삼성은 인재의 채용과 육성, 등용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구축해 '삼성 사관학교'로 불린다"고 평가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타룬 칸나 교수는 한국 기업집단(재벌)의 공과(功過)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풀어놨다. 그는 "한국의 기업집단은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새 회사를 창업해 잠재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부정적 측면만 강조해 긍정적 역할을 외면하는 것은 마치 방 안에 큰 코끼리가 있는데도 이를 모르는 척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 프린트 📧 달기

Copyright (c) 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chosun.com for more information.